



■ 교사감사주일 특집

“요게벳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희 부부는 매 주일 아침 저희 아들과 각자의 예배당으로 헤어지며 인사합니다. “지온아,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 부르고 와!” 그러면 저희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예수님 잘 만나고 올게!”

아직 두살 반 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할텐데도 항상 들뜬 마음과 기쁨으로 어린이 찬양을 흥얼거리며 교회로 향합니다. 교회에 도착하면 한주도 빠짐 없이 밝은 미소와 사랑 가득한 허그로 맞아주시는 요게벳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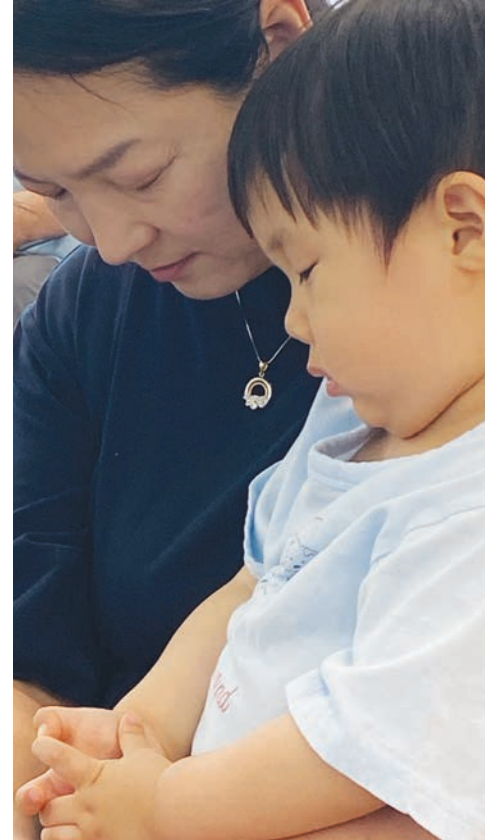
요게벳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케어해 주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섬기심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아

‘예수님 잘 만나고 올게’
2살배기 지온이가
벌써 예배의 자리에...

이들이 온전히 느낄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돌보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아이의 표정과 예배의 태도를 통해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게벳 선생님들의 헌신과 섬김 덕분에 저희 부부는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았던 한주간을 내려놓고 주일에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며 말씀으로 마음을 채울수 있는 시간이 허락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게벳 선생님들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매주 깨닫게 됩니다. 주안예교회를 통해 귀한 영적 선생님들을 만나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또 사랑안에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매주 큰 헌신으로 애써 주시는 선생님들께 큰 감사와 인사를 드립니다.

<박익준·구윤혜 집사> <관계기사 3·8면>



엄마, 아빠와 떨어져 요게벳 선생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지온이의 모습이 천진스럽다.



한글학교 운동회. <12면>



찬양팀 수련회. <4면>



주안예교회 창립 12주년 감사 예배, 성가대가 ‘새 노래’를 찬양하고 있다.

<사진 송기영> <3면>

‘성경읽기 이렇게 기쁨이...’ 40여명 통독 은혜

■ 주안에말씀 24기 수료

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성경 통독 ‘주안에말씀 24기’가 4개월 만에 종료되었다.

4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30분(목요일)에 Zoom으로 진행되던 통독이 지난 5월 18일 주일 오후 2시 ‘주안에 새 가족실’에 월요일과 목요일의 참가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 요한계시록 1장~22장을 한 목소리로 대면통독 하므로 ‘주안에말씀 24기’를 은혜롭고 감명 깊게 끝을 맺게 되었다.

원래 주안에교회 성경 통독 방법은 참가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입으로 소리내어 읽고, 귀로 들어 시인하고, 가슴으로 느껴 감동하므로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Covid 19’ 팬데믹 기간에 함께 모일 수가 없어 Zoom을 통하여 참가자들이 각 가정에서 통독을 진행하였는데 팬데믹 기간 후에도 zoom으로 진행하면 참가자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참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계속 Zoom을 통해 성경통독을 진행 하였다. 그러다 이번 ‘주안에 말씀 24기’에 마지막 모임을 교회에서 전체가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통독을 마치고, 4개월 동안 성경 통독을 하며 받은 은혜와 느낌을 몇 사람이 발표하고 의견을 나눈 것이 정말 인상 깊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4개월 만에 다 읽다보면 방대한 양과 수많은 인명,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많은 지명으로 인해 이해하고 기억하기가 힘들었지만 성경 통독을 인도하신 장로님과 전도사님들이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

< Staff Writer 나형철 >

밸리 시니어들에 ‘인기 짝’ 9월에 다시 만나요

■ 주안에라이프 봄학기 종강

3월12일에 시작된 ‘2025년도 주안에라이프 봄학기’가 10회의 활동을 끝으로 5월 21일 종료 되었다. 바IBLE, 스마트폰, 서예, 정원가꾸기, 라인댄스, 배드민턴 등 20여개의 클래스에서 다양한 취미 활동과 건강 향상에 필요한 활동들을 배우고 익히는 ‘주안에라이프’가 샌퍼난도 밸리 일대에 많이 알려지고 인기가 좋아 해마다 참가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금년엔 참가자가 300명이 넘는 날도 있어 준비한 점심 식사가 부족하여 점심밥을 2번 하느라 힘들었다는 일도 있었다.

원래 ‘주안에라이프’를 운영하는 목적은 우리 주안에교회와 우리 교회 주변 샌퍼난도 밸리 지역에 있는 시니어분들이 여가 시간을 잘 이용하여 취미 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도와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 귀한 활동



을 금년 봄학기에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

금년 봄학기에는 종강 발표회가 따로 없고 9월 10일~11월 12일까지 계속될 하반기 주안에라이프가 끝나는 날 봄·가을학기 20주간 배우고 익

힌 기량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가자들을 지도하기에 수고한 강사들과 식사준비 등 주안에라이프 진행을 위해 여러모로 수고한 봉사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난 5월28일에 파우젠옥스에 소재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하여 함께 모였다.

< Staff Writer 나형철 >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마음 ‘땅끝까지 복음을’

■ 창립12주년 선교세미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안예교회 창립 12주년 선교세미나가 지난 5월30일(금)부터 6월1일 주일까지 열렸다.

국제선교단체 오엠(Operation Mobilization) 한인대표 김일권 목사를 초청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주제의 세미나는 교회의 본질인 선교를 성경말씀을 통해 배우고,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일권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중보기도의 힘과 능력, 영적 전쟁, 교회의 사명이라는 4가지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열방의 구원과 하늘의 못별처럼 많아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을 언약하셨음을 전했다.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보여 주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드디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을 통해 우리가 새생명, 곧 영생의 복과 함께 새로운 사명을 주셨으니 곧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요청했다.

또한 강사 본인의 17년간의 중동선교사 사역 중 체험한 중보기도의 기적을 소개하며 공동체 기도가 선교에 필수적이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평안과 안전을 내려 놓는 결단이 있어야함을 강조했다.

<Staff Writer 조용대>

‘돌봄과 헌신’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영커플-학부모회 교사 감사 뱅킷

지난 5월 18일에 영커플 아가페 공동체와 IC kidz 학부모회 주최로 주안예교회 요계벳 선생님과 IC kidz 부서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교사감사예배와 뱅킷의 시간을 가졌다.

30여명의 교사들을 초대하고 아가페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하여 사회자의 퀴즈와 선물로 어색한 분위기를 깨며 시작하였다. 아이들과 부모님의 감사 영상 메세지, 자녀들과 함께 불러준 찬양의 시간, 이충환 담임목사의 메시지 순으로 진행되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들을 분담해서 모든 순서에 참여한 학부모들과 섬김을 받는 교사들 모두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름다운 작약꽃으로 차린 예쁜 식탁, 선생님들 이름을 테이블마다 작은 칠판에 써서 특별하게 마음 써 주신 것, 맛있는 햄버거 스테이크, 과일, 음료수, 간식과 선물 보따리 등등, 대접받기



너무 부끄럽다고 말씀하시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감사의 마음이 오가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국경진 선생님은 "요계벳에서 천사같은 아이들을 돌보는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참 기쁨인데 학부모님들께 '교사 감사회'라는 너무나 황송

한 선물을 받았습시다. 찬양, 영상, 음식, 선물 등 큰 정성으로 준비해 주신 부모님들, 부모님들 준비에 늦게까지 고생한 우리 아이들, 또 곳곳에서 도우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고 나눠 주셨다.

<Staff Writer 류명수·사진 김영진>

‘사랑과 관심’ 여름 성경학교 응원해요 ♥

■ VBS 펀드레이징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님의 성실하심을 증언하지만, 유독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면 주님의 성실하심과 선하심을 새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어느새 5월이 지나가고, 교육부의 가장 큰 연중행사인 VBS(여름성경학교)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IC Kidz에서 섬긴 후 세 번째로 맞이하는 VBS이고, 지난주에는 이를 위한 펀드레이징 행사도 은혜롭게 마무리했습니다. ‘성공적’이라는 표현은 단지 목표 금액을 달성했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해 주셨기에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이었다고 믿습니다.



아직 돌봄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께서 이른 아침부터, 혹은 전 날부터 정성



껏 준비하며 기쁨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Kidz 부서가 아님에도 자기 일처럼 기꺼이 함께해 주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헌신을 보며, 오히려 제가 더 큰 힘을 얻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참 귀하고 중요하지만, 이미 장성한 아이들을 키운 엄마로서 날마다 절감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인지’를

그들의 마음 깊이 새겨주는 일이야말로 삶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사명임을요.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위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모로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특히 PSG 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윤진영 IC Kidz 부장>

‘힐링의 1박2일’

■ 찬양팀 수련회

메모리얼 위켄드 주안예교회 찬양팀이 1박2일 찬양과 말씀, 기도와 나눔, 명절날 가족들과 함께하는 듯한 식탁의 교제로 함께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날 집에 가는 시간도 미루고 함께한 단합 시간을 통해 주안에서 함께 웃고 온전히 하나될 수 있는 힐링의 시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Staff Writer 류명수>



♥ ‘감사와 존경’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 코람데오 어버이주일 봉사

2025년 5월 11일 예년과 같이 돌아오는 어버이 날이지만 올해도 사랑을 담아서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 되시는 부모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는 특별한 주일이였다. 주안에 교회에서는 한어 코람데오 청년부와 EM 공동체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ICY 중고등부 학생이 함께 카네이션 꽃을 준비하였다. 정성껏 만들어낸 빨간 카네이션 꽃과 안개꽃을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부모님들 가슴에 한송이씩 마음을 담아서 달아드렸다.

부끄러워하시는 듯 하면서도 그 얼굴에 기쁨과 행복함이 넘쳐나 숨기실 수 없는 모습들을 보니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 덩달아 기쁜 시간이 되었다. 빨간 카네이션 꽃에는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건강을 바란다는 꽃말이 담겨 있다고 한다. 어머니의 날(어버이날)에 카네이션 꽃을 드리게된 기원은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교회에서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흰색)카네이션 꽃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그 후 그녀의 여러가지 노력으로 1914년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인 토머스 우드로 윌슨이 5월 둘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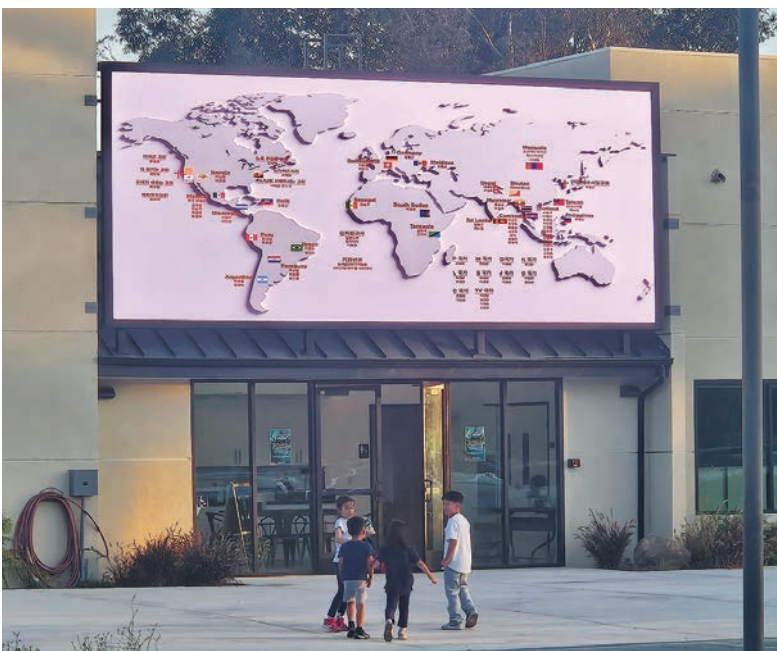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Mother's Day)’로 지정했다고 한다. 그녀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은 전 세계적으로 기념일을 지정하고도 남아 계속해서 해마다 곳곳에서 부모님들에게 평소 표현하지 못한 감사와 사랑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이어지



고 있다.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닌 소소한 작은 것으로도 사랑을 표현하면 더없이 기뻐하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올해도 감사를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고 이 감사와 사랑을 자주 더 많이 표현해드리면 좋겠다.

<Staff Writer 송영진>



비전채플 옥외 LED 설치

주안에교회는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소채플 외부에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하였다. 이 스크린은 단지 시청용 장비를 넘어서, 예배 공동체의 울타리를 확장하는 창구가 될 예정이다.

야외 스크린은 향후 실시간 영상 송출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예배 중 본당 입장이 어려운 성도나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도 동일한 은혜의 흐름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예배당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며, 더 넓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마련된 따뜻한 배려다.

앞으로 특별한 주일이나 교회 행사가 있는 날엔 야외에서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펼쳐질 것이다. 밝은 햇살 아래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듣고,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예배의 감격을 나누는 모습은 이 스크린을 통해 기대되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다.

<Staff Writer 이원근>



비전채플 4개동
주일예배 모습들



■ “믿음의 일꾼들이 자라는 Faith Hall” (201호)

Kinder부터 5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이 예배하는 공간으로, IC NOW와 IC POWER 부서가 함께 모인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며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자라난다.



■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는 Grace Hall” (101호)

IC LOVE (영아부)는 요게벳 선생님들의 따뜻한 돌봄 속에서, IC HAPPY (유아부)와 IC JOY (유치부)는 찬양과 성경 이야기, 예배를 통해 기도와 순종을 익히며 자라간다.



■ “주님의 비전을 품는 공간, Harvest Hall” (401호)

영어권 청년부 및 장년 공동체인 EM이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예배와 섬김, 말씀 훈련에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시는 교회로 성장해가고 있다.

<Staff Writer 이원근>



■ “믿음과 열정이 자라는 Glory Hall” (301호)

ICY(InChrist Youth)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찬양, 제자훈련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또래 간의 나눔과 배움 속에서 믿음의 리더들이 자라나는 귀한 자리이다.

‘주안에신문’은...

2013년 주안에교회 창립 이래 매월 발간해 오고 있는 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회 행사와 사역국 소식, 교우들 동정과 기고 등 다양한 내용을 커버합니다. 교회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고, 소통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주안에신문은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원고 및 사진 접수 icccnews123@gmail.com)

Staff Writers - 조용대(팀장) 오희경(부팀장) 나형철
이예스터 이원근 류명수 이현영 송명진 이현주
사진 - 윤석중 송기영

주안에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이 본교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부 받은 한국어 책 150여권 ‘동 났어요’

■ 첫 북페어 큰 호응

올해 처음 선보이는 한글학교 북페어가 주안에 운동회가 진행된 본관 앞에서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주안에 한글학교 학생 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님 자녀들에게 한글을 알리고 좀 더 친근하게 한글을 읽을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계획된 이번 이벤트는 한글학교 선생님들의 순수하고 따뜻한 자원으로 십시일반 저마다 자녀들을 위해 그간 거금으로 산 귀한 한글책들을 헌납받아 대략 150권의 책을 모았고, 다양한 주제와 레벨의 전집과 통화책 과학과 식·동물전집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책들이 단돈 2~3불의 가격으로 성도님들께 소개되었다.

처음에는 지나가던 몇분의 성도님들만 관심을 가지셨지만, 선생님들의 열띤 설명과 홍보로 삼기간에 좋은 전집과 책들이 대량으로 판매되어 뒤늦게 소식을 접한 학부모님들의 아쉬움을 샀



을만큼 어린 자녀들을 둔 성도님들께 좋은 가격에 많은 책을 구입하는 귀하고 특별한 기회가 되었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한 성도님께서는 본인도 그간 아이들이 잘 보지않는 한글책들이 집에 많이 있다며 다음기회에는 도네이션 하고 싶으시

다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셨다. 막상 사려고하면 구하기도 어렵고 비싸지만, 또 한편으론 이젠 시간이 흘러 더이상은 집에 모셔둔 애물단지처럼 책장만 장식하고있는 한글책들이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언제든지 한글학교에 문의하시면 나눔을 실천하실수 있다.

<Staff Writer 이현영>

학생·교사·학부모 함께 일궈낸 보람

■ 2024학년도 종강

내 나라 말을 지키고 배운다는것이 너무 당연한듯해도 다른나라에서 내 모국어를 배운다는것은 참으로 피곤하고도 힘겨운 일임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 다시금 느낀다.

그러나 지금의 이 시간들이 쌓이고 모여져 언젠가 귀하고 꼭 필요하게 쓰이길 기도하고 다독이며 보내온 그간의 여정들이 오늘 드디어 마무리되었다.

누군가는 기쁜 마음으로 또 누군가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 더러는 그냥 습관적으로 이 자리를 채웠더라도 그 모든 시간을 묵묵히 채우고 성장한 우리 아이들 모두의 노력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을 공들여 진심



과 사랑을 다해 아이들 한명 한명 가르치고 봉사하신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고에도 하나님의 따뜻하고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한다. 또 그 곁에서 묵묵히 선생님을 도와 열심으로 애써준 리더쉽 및 우리 TA학생들에게도 그간의 수고에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이렇듯 한글학교는 혼자 힘의 아님 주안에 또다른 공동체로써 믿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이 시간들을 채워왔다.

<Staff Writer 이현영·사진 에스더 민>



선생님들 섬김 통해 예수님의 모습 배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5월18일, 주안예교회 아이들을 섬겨 주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감사 뱃팻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다같이 모여 한마음으로 뱃팻을 준비하며, 저희 또한 선생님들의 노고에 보답 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언제나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며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선생님들의 헌신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고 있는지 느낍니다. 선생님들의 기도와 사랑, 따뜻한 미소와 정성 어린 가르침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윤하권-이다이 집사>

여름 사역의 열기 속에서의 단상

■ 교역자 칼럼

어느덧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쌀쌀한 기온에 바람마저 세차게 불어오던 봄부터 벨리의 여름 날씨에 대한 경고 아닌 경고를 들었던 저는 얼마나 무더운 날씨를 맞이하게 될까 내심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대단한 벨리의 여름 날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이마에 송글 송글 땀이 맺히는 까닭은 벨리의 여름보다도 한층 뜨거운 주안예교회 여름 사역 한가운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국에서는 VBS며, 각 부서 여름 수련회 준비로 분주하고, 선교국에서는 단기 선교의 일정을 위해 이런 저런 훈련을 하느라 비지땀을 흘립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워내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지요? 저는 여름 사역을 진행하는 현장을 들여다 보면 그 속담에 동감하게 됩니다.

VBS 만 들여다 보아도 그렇습니다. 보통은 교회 학교의 매년 돌아오는 행사이겠거니 하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 그 안에는 우리 교회 각 연령층이 연합하여 어린 자녀들을 섬기게 되므로 가장 가까운 선교의 현장입니다. Youth의 학생들을 비롯하여 EM, KM의



청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기 위해 훈련 받고 준비하고, 부모 세대나 조부모 세대는 식사 준비, 주차관리, 안전관리 등으로 섬겨야 하고...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한 행사인데, 사실 이 행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온 교회 전 세대’가 함께 움직이며 연합되어야 치러 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VBS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사역에 동참한 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에 잘 참여 하도록 훈련시키고 살피고 챙기기 보다는 이루어 내야 되는 사역에 조바심이 나서 일의 결과가 나도록 막 몰아가고 있는 순간을 말입니다.

일면식도 없이 동서 사방에서 모여 주안예교회의 성도가 된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되어 준비하는 이 여름 사역의 현장에서 한 번쯤 짚어 보아야 할 일 같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성도 서로가 얼마나 애뜻이 사랑하고 섬겼었는지를 말입니다.

김지현 목사 <교육국>

■ 소평순 선교사 박사학위 축하

주안예교회에서 협력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중 하나인 동유럽 몰도바 소평순 선교사의 선교학 박사 (Ph. D) 학위수여식이 6월 7일 캘리포니아 프레스비지 대학교 (전 미주장신대)에서 있었다.

소평순 선교사는 20대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거쳐 전쟁으로 인해 지금은 몰도바에서 여성 리더십 및 싱글 여성을 위한 사역을 30년 동안 하고 있다.

"선교학적으로 본 위기 상황의 여성 리더십;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를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박사논문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서 현지 교회와 협력하여 여성 리더십 개발사역에 힘쓰고 여성 선교사 리더십 포럼 및 미혼 싱글 여성 선교사들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심을 갖고 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소 선교사는 한국의 가족도 참석할 수 없는 여건 속에 혼자서 외롭게



학위수여식을 마칠뻔했는데 주안예교회 선교위원회 장로님과 팀원들이 방문하여 함께 축하해주고 꽃다발도 전달해 주어 기쁘고 무척 감사해했다.

<윤세희 권사>

복음의 불모지에 예수님 사랑을

■ 후원 선교사 인사말

살롬! 오늘도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주안에교회에서 저희 K국을 품어주시고 동역을 결정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10대 시절, 같은 교회에서 자라며 이슬람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20대에는 그 비전을 구체화시켰고, 30세에 접어들며 두 자녀와 함께 K국으로 파송 받았습니다. 선교지에 가자마자 선물로 받은 셋째와 함께 지금은 5가족이 K국을 섬기고 있습니다.

K국은 1999년 전쟁을 겪고 독립한 작은 신생국가로, 현재도 UN가입국의 절반 정도만 독립을 인정하는 미승인국가입니다. 인구의 95%가 무슬림, 복음화율은 0.07% 정도로 전국 약 20개 교회 (절반은 가정교회), 1000명의



성도, 100여 명의 국제선교사가 복음을 지켜가는 선교의 불모지입니다. 한인은 아이들 포함 30명 미만, 그마저도 모두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현지교회의 자립을 위해 동역하며 장애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산국가였던 역사적 배경과 전쟁의 여파, 유럽 최빈국이라는 열악한 경제사정, 무엇보다 이슬람의 종교적 배경으로 인해 이곳에서의 장애인과 그 가정은 사회와 단절된 채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저희는 소외된 장애인가정을 찾아 장애 아동의 교육을 돕고 가족들의 정서적,

영적 필요를 돌보고 있습니다.

K국을 향한 주안에교회의 기도와 사랑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날을 기대하며 저희 역시 맡겨진 복음에 충성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K국 김동훈 & 정은 가족>

30년 넘게 수감생활 예수님 닮은 모습...

■ 주안에호프 면회기

올해 유난히 유채꽃이 많이 핀 산과 들녘의 풍경을 따라 샌디에고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올해 60세가 되는 이대니 형제를 만났습니다. 대니 형제는 30년이 넘는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대니 형제는 십여 년전 감옥 안의 목조교회 건물을 지나가다가 고등학교 시절 힘든 마음에 교회를 찾았던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고 그 순간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하여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나쁜 습관들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선택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가기를 힘쓰고 있는 그의 삶의 간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년 6월에 첫 가석방위원회에 가게 됩니다. 혼혈아로 태어나 상처로 얼룩진 아픔의 긴 세월을 지나온 삶의 어두운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밝고 평온한 대니 형제의 모습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의 참 소망되심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정아 권사>

■ 벨리 청소년 오케스트라 16회 연주회

벨리 청소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Valley Youth Philharmonic Orchestra) 16회 봄 콘서트가 6월8일 저녁 본당에서 열렸다.

청소년들에게 음악적 재능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 2009년 창립 후 16년째 이끌고 있는 구자형 권사의 열정과 성실함이 해마다 알찬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그동안 오케스트라를 거쳐간 벨리와 인근 지역 많은 음악 꿈나무들이 대학과 사회에 진출했고 벌써 음악가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음악을 통한 커뮤니티간 교류와 유대에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헝가리안 댄스' 등 다양한 춤곡들을 선정해 청중들을 감미롭고 아름다운 서정 속으로 끌어 들였다. 피날레 곡인 아리랑



은 세대를 넘어 모든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흐르는 공통적 감성을 자극, 박수갈채를 받았다.

벨리청소년오케스트라에 교우들의 많은 관심과 자녀들의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문외는 구자형 권사에게 하면 된다.

<Staff Writer 조용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비길 데 없는 기쁨이

■ 이제형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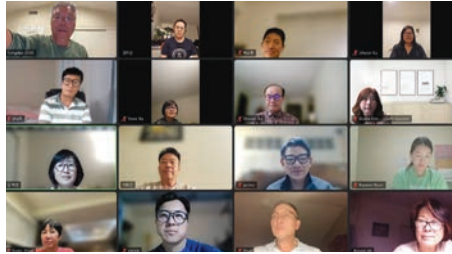
이번 주말씀 통독 24기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할때 사탄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낙심을 주는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그만 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아등바등하면서 18주를 보냈습니다. 지난 18주를 돌아볼 때,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신갑주를 입을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끄신다고... 내가 할 일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라고...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내 삶에서 말씀은 계속해서 읽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은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헛된 삶을 좇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 구지현 집사

저의 성경읽기는 2016년 ‘1년1독’ 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의 친구 두명과 함께 매일 3장~4장 씩 읽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진도가 밀리기 일쑤였으나 가까스로 일년에 일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팬데믹 기간인 지난 2023년 주안에말씀 20기에 등록해 매일 10여장을 읽으며 휘몰아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번24기에는 남편이 관심을 보이길래 지난 통독에서 받았던 저의 감동을 나눈 후 함께 등록했습니다. 저는 ‘뚝배기’로 나선틈었지만 함께 하며 배나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성경읽기 진도를 상의해서 그날의 분량을

5절씩 서로 번갈아 큰 소리로 읽어내려 갔는데, 이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읽다가 궁금하면 멈춰서 이야기 나누고, 찬양으로 인용된 곳은 같이 찬양으로 읽어내려 가고, 설교에서 듣게 되면 더 반가운 내색을 하며 그날 설교를 다시 되짚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남편과 더 깊은 신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직장 일로 여건이 불확실했지만, 인도하시는 장로님의 격려로 용기를 얻어 시작한 24기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비밀을 간직한 고귀하고 아름다운 성경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까지 들려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만 알 것이 아니라 이 좋은 말씀을 부모, 형제 자매와, 친지 등 나를 아는 모든 이에게 할 수만 있다면 성경통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와 공화와 자비를 구하오니 제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제 삶에서 주의 신실하시고 끊임 없는 인내와 사랑과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찬송하는 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God is the Perfect Matchmaker!

■ 정인남-신유화 커플

하나님께서서는 최고의 주선자 되십니다! 주의 청년들이 모인 은혜가 가득한 현장 코람데오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알맞은 때에 서로를 알아볼수 있도록 각자의 삶에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저희 두사람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던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9:5-6

이충환 목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며 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 안에 두신 크신 비밀을 날마다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코람데오에서의 잊지 못할 귀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뒤로하고 영커플로 올라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새로운 공동체에 적응하며 또 가정을 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은혜가 가득한 여정이 시작되기를 소망하며 기대함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가난한 산속 마을 카렌족 교회의 선교 바람

2025년 5월 4일, 나는 태국 북서부 끝자락에 위치한 ‘씨쏘뿌’ 교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이 교회가 외국 선교사를 후원하고, 앞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상황을 보면,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씨쏘뿌’ 마을은 해발 1,100미터의 깊은 산속에 있는 외진 마을로, 휴대전화 신호조차 닿지 않는다. ‘요리’ 목회자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 며칠이나 시도해야 했다. 대부분 초등학교 수준의 학력 혹은 무학력자인 이 마을 주민들은 우리가 함께 방문한 선교사의 출신국인 엘살바도르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다.

3년 전에는 교회당 기둥이 흰개미 피해로 무너져 새 교회를 짓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공사 중이다. 외국 선교사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선교사의 도움이 절실해 보이는, 외적으로는 전형적인 ‘선교 대상지’이다.

방문 목적과 ‘씨쏘뿌’ 교회의 선교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나누는 시간도 특별히 세련되지 않았다. 도착 후, 먼저 허름한 교인 집에서 담임목회자와 장로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번 방문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저녁 식사 후에는 전체 교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고,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아침 식사 후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씨쏘뿌’ 교회를 방문 대상으로 정한 또 다른 이유는, 이 교회가 깊은 헌신을 지닌 공동체이기 때문이었다. 현재 세례교인 약 150명이 드리는 1년 헌금이 120만 바트(약 36,000달러)에 이른다. 주로 생강 농사를 짓는 이들은 넉넉하지 않지만, 온전한 심일조를 드린다. 3년 전, 교회당 건축을 시작하면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로 결의했으며, 지금까지 60만 바트를 스스로 모금했다. 외적인 가난함에 비해 매우 높은 헌신을 보여주는 교회이다. 그럼에도 외국 선교사를 후원하고 파송하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이다. 그들은 선교 후원이라는 개념조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놀라운 방식으로 일한다. 그들의 반응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소식을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선교사를 후원할 때가 되었습니다.”

풀러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친 폴 피어슨(Paul Pierson) 박사는 ‘변두리 이론(Periphery Theory)’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가진 독특성을 설명했다. 그는 “부흥과 확장은 대부분 그 시대 교회 권력 구조의 변두리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선교운동은 교단의 중심이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 아니라, 약한 주변부에서 시작되어 생명력을 얻고 중심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오늘날 나는 그 이론이 태국 카렌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다.

<태국 치앙마이-오영철 선교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순교자의 피로 종족 100% 복음화



살롬, 저는 동북인도에서 일을 마치고 오늘 새벽 태국 방콕에 도착하였습니다.

동북인도의 메갈라야 주에 거주하는 가로 종족 가운데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Nokseng과 그의 가족은 ‘힌두교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부족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힌두교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라는 고백을 했고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가로 종족은 그 이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고 선교적인 교단으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이번 CBCNEI의 Platinum Jubilee 행사에서 가로 종족이 부른 감동의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이 가로족 첫 개종자의 신앙고백이었고 그의 순교 후에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져서 현재 가로족은 100%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남반구 순회선교사 760>



■ ICY 12명 고교 졸업

Class of 2025, ICY에서 이번에 high school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13명이 된다. 각각 다른 학교에서 졸업하는 친구들을 위해 서로의 학교를 방문하며 축하해 주고 있다. EM 형제, 자매들도 이제 졸업하고 EM 소속이 되는 후배들을 찾아가 꽃을 안겨주며,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 즐거운 추억 또한 만들고 있다.

Kaylie Jung, Ariel Choe, Jihwan Park, Joshua Lee, Skylar Hahm, Kayla Shin, Yenna Yang, Evelyn Ahn, Sarah Kim, Patrick Yang, Solomon Yun, Karen Yu, Audrey Park



■ 주안에 한글학교 운동회

가정의달 오월을 맞아 푸르른 날씨만큼 새록새록 자라나는 주안의 미래 새싹들을 위한 제4회 봄맞이 주안에 한글학교 운동회가 개최되었다.

새로 지어진 비전채플 전광판 앞에는 학생들이 기다리는 반짝이는 우승 트로피와 각종 경기를 위한 소품 그리고 다양한 선물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올해는 진행을 맡아주신 귀한 집사님들께서 미리 사전 예행연습까지 준비하시며 꼼꼼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주신 덕에 그야말로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세련된 진행으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손에 땀을 쥐게하는 흡사 유년의 초등학교 운동회를 방불케하는 박진감 넘치는 다양한 경기를 선보였다.

몸풀기 체조를 시작으로 공굴리기, 파도타기, 바구니 공 넣기, 줄다리기 등 서로의 팀워크와 집중이 필요한 경기에, 도움에 나선 TA 형, 누나나 우리 학생들이나 모두 한마음이 되어 청팀, 백팀을 목이 터져라 응원했다.



유쾌한 진행으로 곁에서 지켜보시던 관중과 학부모님들도 웃음꽃을 피우는 가운데 피날레 줄다리기에는 많은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아 그야말로

막상막하 열띤 승부를 펼쳤다. 모든 경기를 마치고 아이들의 두손에는 반짝이는 트로피와 풍성한 선물이 안겨졌다. <Staff Writer 이현영·사진에스터 만>